**기타오카 자연공원**

성하 마을과도 비교적 가까운 하나오카야마 산 기슭에 위치하며 녹음이 우거진 기타오카 자연공원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는 1642년에 호소카와 다다토시(1586-1641)부터 대대로 선조를 모시기 위해 건립된 묘게지 절이 있었으나, 정부의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에 따라 1871년에 폐사(廢寺)되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공습으로 인해 파괴될 때까지 이곳에는 호소카와 가문의 저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지나 오른쪽 뒤편에는 묘게지 절의 가레산스이 정원이 남아 있습니다. 가레산스이란, 큰 바위와 자잘한 자갈을 사용하여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구마모토에서는 보기 드문 양식입니다.

정원 남서쪽의 오솔길을 따라 돌계단을 올라가면 묘소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에 도착합니다. 돌계단 아래와 중간 층계참, 돌계단 상부의 탁 트인 공간에는 총 66개의 가신들이 기증한 석등롱이 있습니다.

문을 빠져나가면 3개의 영묘가 마련된 직사각형의 광장이 나타납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아래와 같은 인물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 호소카와 미쓰나오(1619-1650): 호소카와 가문의 4대 당주. 묘게지 절을 창건.
* 호소카와 다다토시(1586-1641): 호소카와 가문의 3대 당주. 미쓰나오의 부.
* 지요히메(1597-1649): 다다토시의 처.

당시 다이묘(영주)의 아내는 도쿠가와 쇼군의 명에 따라 에도(지금의 도쿄)에 거주하는 것이 의무였으며, 사망한 경우에도 에도에 묻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쿠가와 히데타다(1579-1632)의 양녀이자 훗날 다다토시의 아내가 된 지요히메는 특별히 남편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2개로 나누어진 영묘는 정면에는 배례를 올리는 하이덴(拜殿)이, 안쪽에는 다마야(사당)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영묘 안에는 거대한 오륜탑이 놓여 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광장 주변을 둘러싼 석탑은 주군이 사망했을 때 순절한 가신들을 모시는 묘입니다. 다다토시의 가신을 모시는 석탑 19개와 미쓰나오의 가신을 모시는 석탑 11개가 있습니다.